

광주 도심 83개 구간 제한속도 50km 이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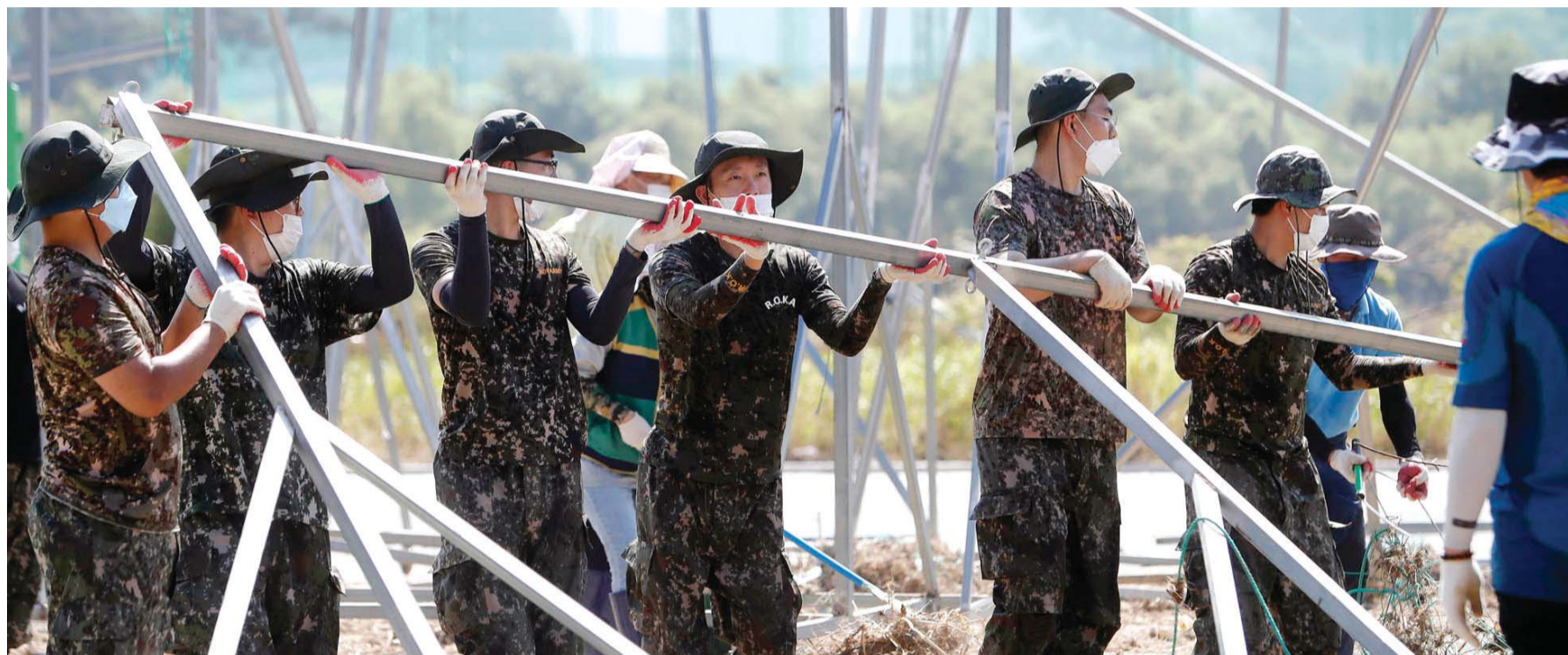
오늘부터 '안전속도 5030' 시청로 등 40개 구간 우선 적용 주택가 이면도로 30km 이하로 지역별 탄력 적용 요구 목소리도

광주 도심 차량 제한속도 하향 조치가 내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로 인해 올 연말까지 광주 도심권 전체 도로 4분의 1 정도 구간에서 50km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0일부터 광주시와 함께 광주도심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의 제한속

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내리는 내용으로 20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이번 통행 제한속도 하향 조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광주도심 83개 구간, 140.4km가 그 대상이다. 이를 위해 광주경찰과 광주시는 지난 4월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교통안전시설설치의를 거쳐 20일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우선 하향 대상지는 40개 구간, 총 75.7km 길이로 서구 옛 상무대 입구-롯데마트 상무점 주차장(0.6km) 구간, 상무역-상무교(2.2km) 구간, 남구 송암고가-풍암IC(2.6km) 구간, 북구 첨단연신로-우치로(3.5km), 광산구 과학기술원-전자공교

(1.6km) 구간, 영천초교-왕버들로(3.5km), 보훈병원-첨단롯데마트(1.3km) 등이다. 제한속도가 하향된 구간에서의 속도 위반 단속은 표지판과 노면표시가 변경된 후 3개월이 지난 때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경찰은 나머지 43개 구간(64.7km)에 대해서도 설계용역을 거쳐 교통안전시설설치가 완료되면 변경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시속 60km 구간을 시속 50km로 하향하는 변경 공사가 완료되면 주택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만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무진대로(광천-계수교차로), 상무대로(임동-송정1교), 어등대로(영광동-호남대), 임방울대로(광산IC-광주은행 양산

점), 서암대로(동운고가-서방 1순환로), 필문대로(남광주-서방 1순환로) 등 30개 구간(140.6km)에 대한 제한속도는 시속 60km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상당수 운전자들은 차량의 안전 성능과 기능은 계속 향상되는데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제한속도를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보행자와 교통량이 적은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60km로 유지하는 등 탄력적인 정책을 펴주길 요구하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통해 그동안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드론공원 수해 복구 작업 19일 광주 북구 드론공원에서 복구청 직원들과 31사단 장병들이 폭우와 영산강 범람으로 인해 파손된 철재 구조물들을 정리하는 등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북구청 제공>

이미 확정된 광주학생문화예술지원센터 명칭 '광주학생예술누리터'로 바꾼 까닭은?

'광주학생아트센터 스무별' 손가락 발가락수서 파와 장애인 상처 고려해 변경

광주교육청이 외부공모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추천한 광주학생문화예술지원센터(가칭) 공식 명칭을 변경해 '광주학생예술누리터'로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148개 공모작을 대상으로 자문단 1차 심사와 전문가·학부모 2차 심사를 거쳐 센터 명칭으로 '광주학생아트센터 스무별'을 최종 추천했다. 최종 추천된 '스무별'은 손가락과 발가락을 모두 합친 수로, 자신의 내면에 잠재한 예술적 감성을 온몸으로 발휘해 세상에 반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스무살은 통상 어른이 되는 나이로, 무언인가 꿈을 이루게 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잠재성을 일깨워 예술적 목표를 이루게 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지닌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소수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불의의 사고로, 또는 태어나면서 줄곧

일부 손가락이 없거나 장애를 지닌 아이들도 적지 않다보니 '손가락, 발가락을 모두 합친 수, 스물'은 되레 장애 학생들에게 '의도치 않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공감대는 빠르게 퍼졌고, 협의 결과 '스무별'을 접는 대신 2차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광주학생예술누리터'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세상'과 '장소' '마음'을 합치고 '맞는다'는 의미를 두루 담은 '누리(터)'에 대한 호평이 반영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어느 때보다 증시되는 시대적 흐름이 센터 명칭에도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학생문화예술지원센터는 동구 예술의거리 내 중앙초교 운동장 한쪽에 73억 8000만원을 들여 연면적 2790㎡에 2층 규모로 내년 9월 개원할 예정이다. 타 지역에서는 창의예술교육센터(서울), 학교예술창작소(경기),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놀이마루(부산), 예술교육원 해봄(경남) 등의 명칭이 사용 중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호남대 '2021 수시모집 온라인 입시박람회'

40개 전학과 입시정보 답아

호남대학교가 전국 대학 최초로 모든 학과의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2021 수시모집 온라인 입시박람회'를 연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시를 치러야 할 수험생들에게 보다 친절하게 대학입시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40개 전학과'의 정보를 한데 아우른 쇼케이스 방식의 '2021 온라인 입시박람회'를 개최한다. 22일부터 열리는 이번 온라인 입시박람회는 호남대 홈페이지(www.honam.ac.kr)를 허브로 다양한 학교 SNS채널을 통해 유입되며 PC, 태블릿 PC,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온라인 입시박람회에서 심혈을 기울인 학과 쇼케이스 전시는 2021학년도 모집인원 및 입시전형, 2020학년도 입시 결과, 학과 입학 상담 연락처 등과 40개 전 학과별 입시정보를 동영상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제공한다. 전국대학 최초로 모든 학과의 특장점과 학습 커리큘럼, 졸업 후 진로 등을 학과 선배와 교수진이 참여해 흥미롭게 소개하는 학과 홍보 동영상은 비대면 시대 대학 입시정보에 목마른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 유·초·중·고, 9월 11일까지 3분의 2 등교 시·도 교육청, 교육부 권고 수용 학생 60명 미만 학교는 전면등교

광주·전남교육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오는 9월 11일까지 유치원·초·중·고교 모두 3분의 2 이하 등교하라는 교육부 권고를 원칙적으로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당초 내달 1일부터 전면 등교하려던 방침을 조정, 다음달 11일까지 모든 학교가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유지해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유치원 및 초·중·고교는 전체 인원의 3분

의 2가 등교, 등교하지 않는 학생은 원격 수업, 다음 달 1일부터는 전면 등교 방침을 세웠지만 교육부의 강력 권고에 따라 9월 11일까지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8일부터 개학과 함께 전면 등교를 하고 있는 전남 역시 교육부의 강력 권고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2가 등교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다만, 전체 학생 60명 미만

등 교육청과 학교 자체적으로 밀집도가 낮다고 판단하는 일부 농산어촌 학교는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면 등교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산어촌 학교는 도시 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학교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등교 수업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은 1학과와 마찬가지로 학교 방역 지침대로 학생 간 접촉

이 많은 이동식 수업 및 토론과 실험 실습 등은 자제하고, 쉬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에 학생들이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밀집도가 높은 도서관 이용과 과학실 수업 등은 학급 내 활동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교내 휴게실, 매점, 카페 등 다중이용 공간을 개방할 때는 학생들이 분산 이용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또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학원방역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성덕고 내일까지 '위안부 기림의 날' 다양한 행사

광주 성덕고등학교가 오는 21일까지 일 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성덕고는 18-21일 포스터 전시회, 19일 종이 소녀상 만들기, 20-21일 피해자 할머니께 위로의 편지쓰기와 '평화의 작은 소녀상' 주변에 화초심기 등 다양한 행사를 한다. 성덕고 학생들은 지난 2016년에도 광주

최초로 평화의 작은 소녀상을 교정에 건립한 바 있고, 4·16 세월호참사와 5·18 민주화운동 등을 기념하는 행사를 해왔다. 김도혁 성덕고 학생회장은 "선배들의 소녀상 건립의 뜻을 이어받아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기념주간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